[인민령수]

전승을 지켜본 반얀나무

반얀나무(榕树)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해도 심지어 바위와 절벽일지라도 뚫고 나올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2000년 3월 12일, 87세의 습중훈은 개혁개방에 평생을 바칠 의지를 표현하고저 심수에 위치한 주택 마당에 한그루의 반얀나무를 심었다. 광동성 개혁개방의 주요 지도자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광동성이 개혁개방의 앞장에 서기를 바랐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가 당과 국가 사업의 중심을 경제건설로 옮기기로 결정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몇달후 당시 중국공산당 광동성당위원회 제1서기였던 습중훈은 광동성에 더 많은 자률권을 부여해 대외경제 및 기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당중앙에 제안했다. 이 담대한 제안은 그가 광동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서 비롯되였다. 습중훈은 라방촌에서 광동과 향항간 소득 격차가 큰 것을 발견한 후 개혁의 의지를 더욱 굳혔다.

1979년 3월, 심수시가 설립되였다. 얼마후 습중훈은 심수, 주해, 산두 등에 경제특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다시 제기했고 중앙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1980년 8월, 중앙정부는 이러한 도시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도록 비준했다. 광동 근무 기간 습중훈은 농촌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예작물, 축산업 및 어업의 발전을 장려하며 향항 투자자를 유치하여 광동이 개혁개방에서 앞선 한걸음을 떼는 데 토대를 마련했다.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습근평은 1982년 지방 근무를 자청했다. 그는 하북성 정정현에서 '인재 9조'를 제안하고 복건성에서 '진강(晋江)경험'을 총화하였으며 절강성에서 '8·8전략'을 제기하고 상해에서 장강삼각주 일체화 추진을 제기했다. 이러한 개혁 경험은 새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우리 나라는 호적제도 개혁, 사법책임제도 개혁, 시장준입 네거티브리스트(负面清单) 제도 등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추진했다. 부친께 전한 축수 편지에서 "당신의 사람됨됨이를 본받습니다", "당신을 따라배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적은 것처럼 습근평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책임지는 아버지 세대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2012년, 광동성 시찰 당시 습근평은 심수 련화산공원에 한그루의 반얀나무를 심었으며 개혁 심화를 위한 동원령을 내렸다.

오늘날, 두 세대가 심은 개혁 정신의 전승을 상징하는 반얀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 인민넷

천한습지공원, 자연의 아름다움을 도시에 융합

2023년 4월 30일에 찍은 천한습지공원 경치 / 신화넷

—한강변, 시민들의 행복원으로

아침해살이 강물에 비칠 때 왕감은 샤타를 눌러 '따오기가 춤추는 한강'의 순간을 렌즈에 담았다.

섬서 한중시 천한습지공원의 초목이 아직 이슬을 머금고 있을 때 왕감 등 촬영애호가들은 이미 카메라를 삼각가에 고정해놓았다. "황새, 백로, 천둥오리는 이미 렌즈의 단골로 되였다." 왕감은 이렇게 말했다. "며칠전, 펠리컨(卷羽鹈鹕)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아름다운 풍경은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그러나 십여년전, 이곳은 도시의 모래채집구간이였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나는 한중시는 도시발전과 생태보호를 총괄계획하여 '1강2안'(一江两岸) 도시 전망계획 구상을 제기했다. 지금은 황량했던 모래사장이 공원으로 변하고 강이 풍경으로 변하여 한폭의 록색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다.

2023년 7월, 습근평 총서기는 한강습지공원에 와서 고찰할 때 이곳을 시민들의 '행복원'이라고 칭찬하고 나서 "생태공원 건설은 자연에 순응하고 습지생태체계의 전반적 보호와 체계적 복원을 강화하며 생태보호를 추진하는 것과 생산, 생활을 상호 융합시키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힘써 환경이 아름답고 친환경적이며 탄소배출이 적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생태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 시달하여 우리는 자연의 도리로 습지를 보호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도시에 융합되게 했다." 한중시 1강2안개발관리위원회 판공실 주임 담보군이 말했다.

"저 풀밭을 보세요. 무슨 비결이 있을가요?" 담보군이 비탈을 가리키며 기자에게 물었다. 그곳에는 푸른 풀이 '록색주단'을 이루고 작은 꽃들이 사이사이를 장식하고 있었다.

"이 풀밭은 사실 한강의 제방 물맞이 언덕입니다." 지하 반메터 되는 곳에 철사바구니와 돌로 경질(硬质)구역을 만들어 수분을 보존할 수도 있고 견고하기도 하다고 담보군은 소개했다.

강을 따라 앞으로 가보면 기슭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와지에 얕게 고여있는 물에서 취어초가 자라고 있고 자주붓꽃(鸢尾)이 미풍에 나붓기고 있다.

"이렇게 자연에 인공을 더해 만든 '비물화원'이 공원에 82곳 있어요." 담보군은 말했다.

비물과 지표수는 해면 시설로 층층이 려과되고 정화되여 다시 한강에 흘러든다. 최근 10년, 한강 한중구간의 수질은 계속 우량함을 유지하고 있다.

올 3월말, 71메터 길이의 말단 어도(鱼道)가 완공되여 물이 통했다. 이로써 전체 길이가 2.3키로메터에 달하는 공원의 어류 회유(洄游) 통로가 전반 관통되였다. 어류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번식할 수 있게 되였고 습지공원의 먹이사슬과 먹이망이 한층 더 복원되였다.

구불구불한 어도를 따라 올라가면 '급류-완류', '심담-여울'이 엇바뀌여 분포되여있고 거기에 피여있는 푸른 잎의 노란 꽃들은 생기로 넘친다. "지금 이미 잉어들이 떼를 지어 어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담보군이 말했다.

모래와 돌은 강의 록색섬으로 되고 개벌은 친수하천으로 개방되였으며 완만한 비탈은 꽃으로 점철된 잔디밭으로 변했다.

지금 천한습지공원은 약 145.6만평방메터의 록지를 복원했는데 자연수역이 6만평방키로메터, 생태섬이 219개 있다. 이곳에서는 314종의 식물, 30여종의 어류, 90종의 조류가 생장하고 있으며 3갈래의 서행보도가 그 사이를 가로질러 물이 록색 속에 있고 사람이 그림 속에 있는 풍경을 연출한다.

천한습지공원은 생태보너스(红利)를 방출하며 한중시가 전력으로 생태도시를 건설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도시 수계, 수역, 기슭과 습지 등을 복원하고 있다. 2023년 중심도시구역에는 51.69만평방메터의 록지가 더해졌다. 배수홍수방지와 비물오수분류 등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도시의 '모세혈관'이 원활해져 도시 생태기능이 보완되고 있다. 남수북조 중간선공정 수원지 보호를 강화하여 '한갈래 맑은 물이 영원히 북상'하도록 확보하고 있다.

해질녘, 시민 리창순은 손자를 데리고 약속한 듯 이곳에 나왔다. 그는 오랜 친구와 함께 신체단련을 하고 어린 손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소년으로 변했다. 멀지 않은 곳의 롱구장, 탁구장에서는 치렬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강변은 행복원이다." 리창순은 해벌쭉 웃었다. "이런 생활이야말로 편안함 그 자체이다."

/ 인민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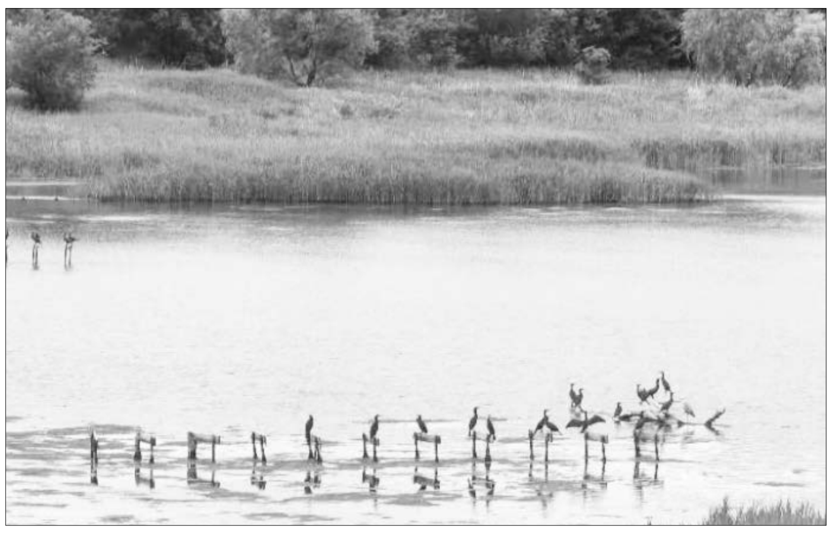
상해 세계응접실, 첫 대중개방일 맞이

6월 16일, 많은 시민들이 첫 대중개방일을 맞이한 상해 홍구 북외탄에 위치한 세계응접실(会客厅)을 찾아 참관하고 체험했다. 세계응접실의 원 주소는 100년의 력사를 가진 량자강부두이다. 이 력사적 풍모 건축군은 3개 건물로 구성되였는데 건축면적이 9만 9,000평방메터이다. 올 7월부터 세계응접실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한다.

사진은 이날 시민들이 상해 세계응접실 야외 전망(观景) 플래트홈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다.

/ 신화넷

중한 민간교류, '쌍방향 질주' 기대



5월 30일에 찍은 부산 락동강 하구 생태중심 / 신화넷

"중국에 열번 가봤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다."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한 직원이 중국에서 온 취재진을 보고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다. 5일간의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중한 '교류 심화' 및 '상호 왕래 증가'의 기대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중국취재진의 첫 방문지는 한국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였다. 지구환경연구과 연구관 전권호의 소개로 한국도 과거 심각한 환경오염단계를 거쳤으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 지금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권호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국은 중국과 비교적 량호한 협력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협력 공간을 새롭게 넓히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과학연구 데이터를 중국과 더 폭넓게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다. 푸른 나무들은 그늘을 이루고 새떼들은 맑은 락동강을 날아가고 있다. 부산 을숙도 철새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한국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서울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인사들은 한중 량국이 모두 환경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각자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 더 많은 교류와 깊은 교감을 나누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열린 제9차 중일한 지도자회의에서 3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김종성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이웃으로서 해양환경 연구 특히 해양오염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진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국간 협력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중일한 지도자회의에서는 환경 협력외에도 인적, 문화 교류의 확대도 강조됐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맥이 통하는 배경을 기반으로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민간 우호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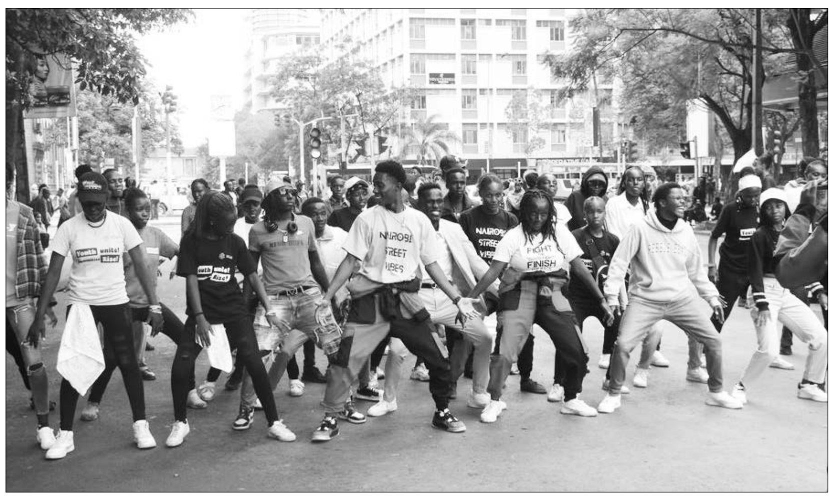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몇몇 한국 학생들은 중국을 방문하고 현지 풍습을 경험하길 바라고 있었다. 반대로 부산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류학생들도 직접 그 나라에서 살고 공부하고 일을 해야 진정으로 그 나라를 리해할 수 있다며 감회를 밝혔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지만 아름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많은 인터뷰 대상자는 이 같은 견해를 전했다.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장 한정훈은 한국과 중국 모두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 문제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는 같은 푸른 하늘 아래 있다."면서 "우린 모래먼지 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의 과학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신화넷

"틱톡 없인 못살아"… 케니아서 불고 있는 틱톡 열풍



케니아 청년들이 2023년 11월 26일, 케니아 수도 나이로비의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단체 스트리트 댄스(街舞)를 숏폼으로 제작해 틱톡에 공유한다. / 신화넷

중국 숏폼(短视频) 플랫트홈인 틱톡(TikTok)이 아프리카 케니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틱톡은 현재 수백만명의 케니아 청소년이 즐겨 찾는 소셜미디어(社交媒体) 앱(APP)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숏폼을 보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일상 대부분을 틱톡과 함께 보낸다는 셀리 말와(21세)는 "틱톡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며 "틱톡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신 동향이나 사건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케니아에서 틱톡은 다른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트홈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이로비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에멜IT솔루션 관계자는 ▷콘텐츠의 후속 내용을 더 빠르게 만들어내는 편의성 ▷대규모 사용자 ▷영상 공유의 편리함 등을 틱톡의 장점으로 꼽았다. 또 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어 케니아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케니아의 대형 통신사 사파리콤에 따르면 18세 이상 케니아인중 약 1,060만명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보고서를 통해 케니아인의 54%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률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케니아인이 틱톡을 통해 뉴스와 오락을 접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파리콤 기사 티마 알리에 따르면 케니아에서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40세 이상 중장년층, 정치인, 종교인도 틱톡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 신화넷